

1981年度 電子工業 現況

本會 統計課

1. 序

1970年代의 韓國의 電子工業은 풍부한 양질의 노동력과 海外 景氣의 호황을 기반으로 年平均 48.6%의 경이적인 成長을 실현했다. 이러한 成長에 힘입어 電子工業은 國內에서도 重要的 위치를 확보 하였을 뿐만아니라 世界에서도 11位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70年代의 급속한 成長은 外形的 成長에만 치우쳐 材料 및 部品 工業의 취약점을 드러내어 신모델, 신제품개발에 어려움을 자초케 되었으며 國內 人件費의 상승과 各國의 자국산업 보호를 이유로 고관세, 수량 및 금액의 제한, 완제품 수입규제 및 안전규격 획득 요구 등 여러가지 方法으로 수입을 규제하고 있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케 되었다. 1981年度에는 美國의 달러화 강세와 해외 경기의 침체로 우리나라 전자공업은 또다른 어려움에 직면케 되었으나 국내 컬러TV 방영 및 市販에 힘입어 다소 생산에 활기를 띄우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 비하면 수출에 있어서 점차 뒤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本稿는 지난해의 우리나라 電子工業 현황을 統計를 통해서 分析하여 向后 輸出增大를 위한 좌표를 세우기 위한 自己 진단으로의 의미를 가지게 됨을 밝힌다.

2. 生 産

世界景氣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國內 電子工業의 生産実績은 前年對比, 32.9%의 成長을 하

여 37억9,100만불을 기록하였다.

生産実績을 投資內分別로 보면 國內人業체가 21억 8,100만불로 前年對比 57.6%가 증가하여 우리나라 電子工業 總生産에 57.5%를 나타냈다. 반면 合作 및 外國人業체는 8억 4,500만불, 7억 6,400만불로 前年對比 各各 9.3%, 10.1% 증가에 그쳤다. 이와 같이 內國人業체에 比하여 生産実績이 저조한 것은 國內의 人件費 上昇과 海外경기 침체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表1. 投資區分別 生産현황

투자구분 \ 연도	1980	1981	증감율(%)
내 국 인	1,384	2,181	57.5
합 작	774	846	9.3
외 국 인	694	764	10.1
계	2,852	3,791	32.9

□ 部門別 生産현황

家庭用機器가 15억 7,400만불로 前年對比 37.1%로 電子製品 總生産에 41.5%를 차지하였다. 반면 産業用 機器와 部品은 4억 9,400만불, 17억 2,300만불로 前年對比 各各 35.5%, 28.6%가 증가하였다.

표 2. 部門別 生産현황

단위 : 백만불

부분별 \ 연도	1980	1981	증감율(%)
가정용 기기	1,148	1,574	137.1
산업용 기기	364	494	135.5
기기계	1,512	2,068	136.7
부품	1,340	1,723	128.6
계	2,852	3,791	132.9

□ 主要品目別 生産현황

컬러TV가 5억 5,200만불로 前年對比 190%가 증가하여 家庭用機器生産額에 35%를 차지하고 있다. 흑백 TV의 경우 上半期에는 상당한 성장을 나타냈으나 下半期の 輸出不振으로 前年對比 △99.4%로 3억불에 달했다. 1981年度에 가장 成長率이 큰 製品은 카라디오로서, 196.5%가 증가하여 3,200만불을 나타냈다.

錄音器 및 錄音再生器는 3억 3,500만불로 前年對比 12.5%가 成長하였다. 반면 전자손목시계는 LCD 전자손목시계가 4,400만불로 前年對比 △72.7%로 저조한 반면, 아날로그 전자손목시계는 8백만불로 前年對比 75.9%가 증가하였다.

□ 産業用 機器의 生産현황

電話器가 3,300만불로 前年對比 67.8%가 증가하였고 인터컴이 1,300만불로 109.5%가 증가하였다. 또한 CB트랜시버가 3,400만불로 前年對比 89.3%가 증가하였으며, 모니터 TV 및 TV 카메라도 280만불, 160만불로 前年對比 各 各 122.8%, 154.1%의 성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자계산기는 2,200만불로 △90.1%를 나타내 前年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金錢登錄器 및 自動販賣器의 경우도 290만불, 210만불로 前年對比 各 各 △62.0%, △ 42.9%로 상당히 부

진 하였다. 産業用機器의 生産이 비록 前年對比 35.5%의 成長을 나타냈으나 金額基準으로 볼때 電子製品 總生産의 13.0%로 아주 미미한 실적이다.

1981年度 電子製品 總生産額에 45.4%를 차지한 電子部品은 컬러TV가 本格的으로 市販됨에 따라 컬러 부라운관이 3,322%가 늘어나 1억 1,500만불을 나타냈다. 또한 편향 요크코일이 1,600만불로 98.6%가 成長했고 스피커 및 카세트 테이프도 4,800만불, 4,300만불로 前年對比 各 各 33.9%, 39.0%가 成長을 하였다. 그 밖에 저항기도 6,700만불로 前年對比 72.2%가 成長을 하였으며, 헤드폰, 콘넥터, 및 반도체류의 生産도 前年에 비해 成長을 하였다.

반면 IFT, 마이크로 모터, 指示메터기 등은 前年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981年度에 生産을 主導한 것은 컬러TV 방영 및 市販으로 同製品의 生産과 關聯部品の 生産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輸 出

1981年度 우리나라 總輸出에 10.4%를 차지한 電子製品은 金額으로는 22억 1,800만불로 前年對比 10.7%의 成長을 보였으나 電子製品 輸出目標인 23억 9,000만불에는 △92.8%로 目標에도 미달하였다. 이러한 輸出不振한 要因으로는 美國의 自國通貨 방위조치로 사상 유례없는 고금리(1981年 12月基準 年15.5%)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는 유럽通貨의 약세를 가져와 輸入業者의 부담이 늘어나서 유럽지역이 不振하였으며, 海外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電子製品의 재고 누적으로 輸出이 不振하였다. 또한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 홍콩 및 싱가포르에 비하여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원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신모델 및 신개발품의 개발이 저조하여 모델의 다양성을 기하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구매력과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輸出市場面에서도 小數國에 偏重되어 있

기 때문에 重要國의 市場 여건에 따라 輸出이 좌우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때 보다도 市場의 多邊化, 새로운 市場의 開拓, 그리고 既存 市場의 深化 等은 물론 對外經濟 協力關係 增進 모색이 要請되고 있다고 하겠다.

1981年度 電子製品 總輸出에 52.2%를 차지하고 있는 內國人 業體는 前年對比 21.4%가 늘어나 11억 8,100만불을 나타냈다. 반면 合作業體와 外國人 業體는 2억 7,400만불, 7억 6,30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91.2%, 1.9%로 前年 水準이거나, 또는 미달되는 저조한 実績을 나타냈다. 이는 國內의 人件費 上昇으로 생산이 저하되었고, 또한 해외경기의 불황이 겹쳤기 때문이다.

□ 部門別 輸出

電子製品 總輸出에 50.6%를 차지한 家庭用 機器가 11억 2,400만불로 前年對比 14.1%가 增加하였다. 産業用機器와 部品은 1억 2,500만불 및 9억 6,90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9.1%, 7.2%가 增加하였다.

主要品目別로 보면 컬러 TV 및 흑백 TV 가 1억 8,300만불 및 3억 1,70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39.7%, 9.9%가 增加하였다. 녹음기 및 녹음재생기도 3억 1,400만불로 前年對比 15.1%가 增加하였다. 반면 전자손목시계와 TV 게임은 3,400만불 및 19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80.7%, △33.0%로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産業用機器는 CB트랜시버 및 인터컴이 3,400만불, 970만불로 각각 105.5%, 33.9%가 증가하였으며, 모니터 TV 및 TV 카메라도 280만불, 15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147.3%, 164.5%가 增加하였다. 그밖에 전화기, 인터폰 등도 상당히 호조를 보였으나 워키토키, 반송전화장치 등은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電子部品の 輸出은 9억 6,900만불로 前年對比 7.2%의 成長을 보였다. 1981年度에 輸出호조 品目은 헤드폰, 스피커로 1,100만불, 3,50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147.9% 41.1%의 成長을 나타냈으며 카세트테이프, 편향요크, 건전지 등이 호조를 보였다. 또한 VTR 테이프가 처너수출하여 580만불을 기록하였다. 한편 반도체류는 작년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저항기, 축전기, 데크메카니즘 등은 전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1981年度の 電子製品 輸出을 品目別로 보면 흑백TV가 홍콩경유 중공으로 상반기에 다량 수출되었으나 중공의 외환관리 심화 정책에 따라 하반기에는 輸出이 부진하였으며, 반도체의 경우 국내의 높은 인건비 상승으로 임금이 싼 필리핀, 싱가포르 등으로 많은 물량이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歐洲지역에서 사용이 안됐던 CB트랜시버가 사용이 허가되어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기했다.

또한 VTR 테이프와 CRT 터미널이 대량 수출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자손목시계도 LCD형에서 아날로그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표 3. 投資別 部門別 輸出現況

단위 : 백만불

구분	연도		1980	1981	증감율(%)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인	합	954	1,181	23.7
	합	합	300	274	△91.2
외국인	인	합	749	763	
	계	계	2,003	2,218	10.7
가정용기기	인	합	985	1,124	14.1
	합	합	115	125	9.1
산업용기기	인	합	904	969	7.2
	계	계	2,004	2,218	10.7

□ 地域別 輸出

全世界 約 125個國에 輸出되고 있는 電子製品은 北美州가 10억 6,000만불로 前年對比 22.8%가 增加 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電子製品 總輸出에 47.6%를 점유하고 있다.

아시아 地域의 輸出현황을 보면 5억 9,600만 불로서 前年對比 10.8%의 成長을 나타냈으며 가장 많이 輸出한 國家는 日本으로 3억 1,200만불을 기록하여 前年對比 2.3%의 증가를 보였다. (日本은 아시아 地域 電子製品 總수출에 52.3%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는 대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호조를 보였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孟加拉라데시 및 네팔 등이 아주 저조하였다. 우리나라 전자제품 수출시장의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 지역은 1981년도에 3억 3,500만불로서 前年對比△89.5%를 나타내어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유럽지역에서는 1억불이 넘는 國家는 서독 1개 國이며, 1981년도에 1억 2,500만불을 나타내어 前年對比 1.2%가 增加하였다. 수출호조 國家로서는 그리스, 포르투갈, 벨지움, 덴마크 등이며 영국, 네델란드, 스웨덴 등은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유럽 지역이 부진한 것은 미국의 달러방위 조치로 고금리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럽통화의 약세를 가져와 수입업자의 부담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중동지역도 1981년도에 6,900만불을 輸出하여 前年對比 △79.3%로 작년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가장 많이 輸出한 國家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서 2,800만불을 기록하여 前年對比 177.1%의 증가를 보였으며 그 밖에도 요르단, 수단, 리베리아, 바레인 등이 호조를 보였으며,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란과 이집트와 오만, 레바논, 모로코 등이 저조하였다. 1981년도에 電子製品 輸出이 가장저조하였던 지역은 아프리카로서 1,900만불을 輸

出하여 前年對比 △74.3%를 나타내 前年水準에도 미달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아프리카 지역중 산유국이며 가장 부유한 國家중의 하나인 나이지리아가 870만불로서 前年對比 59.6%의 신장과 함께 아프리카주 전자제품 총수출에 4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케냐, 리베리아, 가봉, 등이 實績은 미미하나 상당한 신장을 보였고 차이레, 아이보리코스트, 가나 등은 前年對比 △50% 이상 실적이 감소하였다.

主要品目別 地域別實績을 보면 컬러TV 輸出國이 1980년도에 20個國에서 1981년도에는 36個國으로 輸出市場이 多變化하였으나 金額基準으로 볼때 北美州가 1억 700만불로 컬러TV 總輸出에 58%를 차지하고 있다. 金額은 미미하나 아시아, 중동, 유럽 등이 前년에 비하여 새로운 市場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홍콩, 멕시코, 칠레, 우르과이, 페루 등이 상당한 신장을 보였다. 흑백 TV 경우 아시아, 중남미, 대양주, 아프리카에서는 호조를 보인 반면 중동과 유럽 지역에서는 前年水準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 홍콩과 파키스탄이 5,500만불, 150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265%, 284%가 증가한 반면 그밖에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거의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중동 지역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제외하고는 거의 작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포르투갈 2,200만불로 前年對比44.1%가 감소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영국과 포르투갈이 1,000만불, 61만불로 前年對比 각각 51%, 299%가 성장한 반면, 서독의 경우 1,200만불을 수출하여 前年對比 △54.7%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한편 노르웨이, 스페인, 네델란드 등은 前年對比 50%이상 감소하여 흑백 TV 유럽 수출이 3,200만불로 前年對比 △62.9%를 나타냈다.

北美州의 경우 前年對比 12.4%가 늘어나 1억 3,300만불을 달성하여 흑백 TV 總輸出에 44.5%를 점유하고 있다. 중남미의 경우 前年對比 47.9%가 늘어나 2,900만불을 나타냈으며 파나마와 멕시코의 경우 前年對比 40.3%, 55.3%가 증가되 각각 1500만불, 290만불을 나타냈으며 그밖에 국가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대양주의 경우 호주가 350만불을 수출하여 46.7%가 증가하였다.

LCD형의 전자손목시계는 北美州만 前年水準을 유지하였으나 其他 地域에서는, 상당히 부진하였다. LCD형 전자손목시계가 세상에 선보였을때 이미 기존수요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신규수요를 창출하기가 어렵고 또한 홍콩의 저가품이 덤핑되어 수출신장이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아날로그형의 전자손목시계는 1980年度에 이스라엘과 서독 2개국에만 輸出하던 것이 1981年度에는 카타르, 파나마 등 7個國에 713만불을 輸出하여 前年對比 130.7%의 신장을 보여 전망이 좋은편이다.

Radio Cassette는 前年對比 12.8%가 증가하

여 1억 6,800만불을 나타냈다. 1981년도에 가장 많이 輸出한 地域은 北美州로서 474%가 증가하여 6,100만불을 기록하였고, 그밖에 아시아, 아프리카가 前年對比 49.3%, 22.2%가 증가하여 2,200만불, 360만불을 각각 나타냈으며 유럽과 중남미는 前年水準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다.

表 4 : 地域別 輸出現況

단위 : 백만불

지역	연도			신장율%
	1980	1981		
아 시 아	538	596		10.8
중 동	87	69		△79.3
구 주	375	335		△89.5
북 미 주	859	1,056		22.8
중 남 미	111	108		△97.7
대 양 주	8	12		52.4
아 프 리 카	26	19		74.3
기 타	—	23		—
계	2,004	2,218		10.7